

외래어 표기법

I. 현행 표기법의 연혁

- 1933 : 조선어 학회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한 조항으로 외래어 표기에 서 새 부호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표음주의로 쓸 것을 규정함.
- 1940 : 조선어 학회가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제정함.
- 1948 : 학술 용어 제정 위원회 제 20 분과 언어 과학 위원회에서 문교부의 ‘외래어 표기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표기법은 음성기호를 소리로 바뀌어 쓰는 발음 전사법이지만, 한글 자모 이외의 글자와 부호를 사용하고 장음은 동일 모음을 거듭 쓰는 방식이었음.
- 1958 : 문교부 국어 심의회의 외래어 분과 위원회가 제정한 ‘로마자자의 한글화 표기법’ 공포 시행됨. 이 표기법은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모범으로 한글 정자법에 따라 24 字母만을 쓰며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표시하도록 규정함.
- 1959 : 편수 자료 제 1집과 제 2집 발간함. 제 1집은 ‘로마자자의 한글화 표기법’ 및 세칙을 정하고 표기 예를 제시하였고, 제 2집은 외국 지명의 표기 예를 제시함.
- 1960 : 편수 자료 제 3집 발간함.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표기 방법을 제시함. 이 ‘편수자료’의 원칙이 흔히 ‘외래어 표기법’이라 불리어지는 것으로, 교과서 등 대다수가

이 원칙에 따르고 있음.

- 1963 : 편수 자료 제 4 집 발간함. 인명, 지명 표기 세칙을 보완하고 중국어 및 일본어의 표기 일람표가 제시되었는데, 장음 표기의 제한 사용과 중자음 표기, 발음 파열음의 처리 등이 일부 달라지게 되어 편수 자료 제 3 집과 상충되는 조항이 생김.
- 1972 : 편수 자료 제 3, 4, 5, 6 집을 합본하여 하나의 책자로 발간함. 이때 제 3 집과 제 4 집의 상충점에 대해 참조 조치를 취하여 농음으로써 자체 모순을 극복함.

II. 개정의 필요성 및 추진 경위

현행, 외래어를 표기하는 방법은 1958년 ‘국어 심의회’에서 제정하고 문교부에서 공포 시행한 ‘로마자자의 한글화 표기법’을 근간으로 하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보완한 편수 자료 제 3·4 집에 바탕을 두고 실시되는 바, 각급 학교 교과서는 물론 대다수 사서 및 일반 서적들도 이 원칙에 따라 적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계 및 언론계에서는 현행 표기법은 첫째로 표기의 원칙과 세칙이 분산되어 있어 그 체계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둘째로 외래어 표기 방법이 국어의 음운 체계로 보아 무리가 있는 점이 있고, 셋째로 외국어의 특성이 고려된 표기의 세칙이 미흡하다는 비판과 더불어 동 표기법의 일부 규정을 따르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 표기상의 혼란이 야기되어 표기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86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 등 국제 행사를 앞두고 외국의 인명, 지명 등 외래어 표기의 필요성이 점증하는 이 시점에서 표기법의 통일은 어문 정책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현행 표기법의 문제점과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문교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정 사업을 추진하여 1985년 12월 28일에 이 ‘외래어 표기법’을 확정 고시하게 되었다.

그 간의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977. 2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에 대한 연구를 검토 위원에게 위촉
- 1978. 5~6 ○국어 심의회 전문 위원, 동 표기법의 문제점 분석 연구
- 1978. 8~11 ○국어 심의회(표기법 분과) 심의
- 1978. 12 ○개정 시안 발표
- 1978. 12~1979. 7 ○시·도별 공청회 및 지상 여론 분석
- 1979. 4 ○설문지 조사
- 1979. 6 ○동 시안에 대한 전문가 및 실무자 회의
- 1979. 7~8 ○여론 종합 분석 및 국어 심의회 재심
- 1979. 8 ○개정 시안의 수정안 발표
- 1979. 9 ○수정안에 대한 여론 조사(설문지, 일간지, 학술 논문집)
- 1979. 10~11 ○국어 심의회 재심
- 1979. 11 ○외래어 표기법안 마련
- 1981. 5 ○학술원에 '79 개정안 검토를 의뢰
- 1982. 1 ○학술원 어문 연구 위원회 구성
- 1982. 10~1983. 10 ○개정안의 문제점 검토 및 보완
- 1983. 11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소규모 공청회
- 1983. 12 ○외래어 표기법 개정안 마련
- 1984. 8~9 ○외래어 표기법 개정안에 대한 설문 조사
- 1984. 10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외래어 표기법 개정안 일부 수정
- 1984. 11 ○외래어 표기법 개정안 보완
- 1984. 12 ○문교부에 보고
- 1985. 2 ○국어 연구소에 '84 개정안 재검토 보완 의뢰
- 1985. 2 ○국어 연구소에 외래어 표기법 심의 위원회 구성
- 1985. 2~6 ○'84 개정안 축조 검토 및 수정 보완
- 1985. 7 ○연구소안에 대한 소공청회 개최
- 1985. 8 ○공청회 결과 심의
- 1985. 9 ○국어 연구소 최종안(해설서 포함) 마련
- 1985. 10 ○국어 심의회(표기법 분과)에서 국어 연구소의 개정안 심의
- 1985. 11 ○외래어 표기법 최종 시행안 마련
- 1985. 12. 28 ○외래어 표기법 확정 고시

Ⅲ. 외래어 표기법

제 1 장 표기의 기본 원칙

- 제 1 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 제 2 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 제 3 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 제 4 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5 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제 2 장 표기 일람표

외래어는 표 1~5에 따라 표기한다.

표 1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

자 음			반 모 음		모 음	
국 제 음성기호	한 글		국 제 음성기호	한 글	국 제 음성기호	한 글
	모 음 앞	자음 앞 또는 말 어				
p	ㅍ	ㅂ, 프	j	이*	i	이
b	ㅂ	브	ɥ	위	y	위
t	ㅌ	ㅅ, 트	w	오, 우*	e	에
d	ㄷ	드			ø	외
k	ㅋ	ㄱ, 크			ɛ	에
g	ㄱ	그			ẽ	앵
f	ㅍ	프			œ	외
v	ㅂ	브			œ̃	외
θ	ㅅ	스			æ	애
ð	ㄷ	드			a	아
s	ㅅ	스			ā	아
z	ㅈ	즈			ā	앙
ʃ	시	슈, 시			Λ	어
ʒ	ㅈ	지			o	오

ts	ㅈ	츠			ㅈ	응
dz	ㅉ	즈			ㅉ	오
tʃ	ㅊ	치			ㅊ	우
dʒ	ㅊ	지			ㅊ	어
m	ㅁ	ㅁ			ㅁ	어
n	ㄴ	ㄴ				
ɲ	니*	뉴				
ɲ	ㅇ	ㅇ				
l	르, 르르	르				
r	르	르				
h	ㅎ	ㅎ				
ç	ㅎ	히				
x	ㅎ	호				

* [j], [w]의 ‘이’와 ‘오, 우’ 그리고 [ɲ]의 ‘니’는 모음과 결합할 때 제 3장 표기 세칙에 따른다.

**독일어의 경우에는 ‘에’, 프랑스어의 경우에는 ‘으’로 적는다.

표 2 에스파냐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자모	한 글		보 기
	모 음 앞	자 음 앞	
자	b	브	biz 비스, blandon 블란돈, braceo 브라세오
	c	ㄱ, 크	colcren 콜크렌, Cecilia 세실리아, coccion 콕시온, bistec 비스텍, dictado 딕타도
	ch	—	chicharra 치차라
	d	드	felicidad 펠리시다드
	f	프	fuga 푸가, fran 프란
	g	그	ganga 강가, geologia 헤올로히아, yungla 융글라
	h	—	hipo 이포, quehacer 케아세르
	j	—	jueves 후에베스, reloj 렐로
	k	크	kapok 카포크
	l	르	lacrar 라크라르, Lulio 롤리오, ocal 오칼
	ll	—	llama 야마, lluvia 유비아
	m	ㅁ	membrete 멤브레테
	n	ㄴ	noche 노체, flan 플란
	ñ	—	ñoñez 뇨네스, mañana 마냐나
음	p	ㅍ, 프	pepsina 펩시나, plantón 플란톤
	q	—	quisquilla 키스키야

	r	르	르	rascador 라스카도르
	s	스	스	sastreria 사스트레리아
	t	트	트	tetraetro 테트라에트로
	v	비	—	viudedad 비우데다드
	x	스, ㄱ스	ㄱ스	xenón 세논, laxante 락산테, yuxta 옥스타
	z	스	스	zagal 사갈, liquidez 리키데스
반모음	w	오·우*	—	walkirias 왈키리아스
	y	이*	—	yungla 응글라
모음	a	아		braceo 브라세오
	e	에		reloj 랠로
	i	이		Lulio 룰리오
	o ^r	오		ocal 오칼
	u	우		viudedad 비우데다드

* ll, y, ñ, w 의 ‘이, 니, 오, 우’는 다른 모음과 결합할 때 합쳐서 1음절로 적는다.

표 3 이탈리아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자모	한글		보	기
	모음 앞	자음 앞·받		
자	b	비	브	Bologna 볼로냐, bravo 브라보
	c	ㅋ, ㄷ	크	Como 코모, Sicilia 시칠리아, Boccaccio 보카치오
	ch	ㅋ	—	credo 크레도
	d	ㄷ	드	Pinocchio 피노키오, cherubino 케루비노
	f	프	프	Dante 단테, drizza 드리차
	g	ㄱ, ㄷ	그	Firenze 피렌체, freddo 프레도
	h	—	—	Galileo 갈릴레오, Genova 제노바, gloria 글로리아
	l	르, 르르	르	hanno 안노, oh 오
	m	ㅁ	ㅁ	Milano 밀라노, largo 라르고, palco 팔코
	n	ㄴ	ㄴ	Macchiavelli 마키아벨리, mamma 맘마
음	p	프	프	Campanella 캄파넬라
	q	ㅋ	—	Nero 네로, Anna 안나, divertimento 디베르티멘토
	r	르	르	Pisa 피사, prima 프리마
	s	스	스	quando 관도, queto 퀘토
				Roma 로마, Marconi 마르코니
				Sorrento 소렌토, asma 아스마, sasso 사소

	t	ㅌ	트	Torino 토리노, tranne 트란네
	v	ㅈ	브	Vivace 비바체, manovra 마노브라
	z	ㅊ	—	nozze 노체, mancanza 만칸차
모 음	a	아		abituro 아비투로, capra 카프라
	e	에		erta 에르타, padrone 파드로네
	i	이		infamia 인파미아, manica 마니카
	o	오		oblio 오블리오, poetica 포에티카
	u	우		uva 우바, spuma 스푸마

표 4

일본어의 가나와 한글 대조표

가 나					한					글				
					어		두			어	중	·	어	말
ア	イ	ウ	エ	オ	아	이	우	에	오	아	이	우	에	오
カ	キ	ク	ケ	コ	가	기	구	게	고	카	키	쿠	케	코
サ	シ	ス	セ	ソ	사	시	스	세	소	사	시	스	세	소
タ	チ	ツ	テ	ト	다	지	쓰	테	도	타	치	쓰	테	토
ナ	ニ	ヌ	ネ	ノ	나	니	누	네	노	나	니	누	네	노
ハ	ヒ	フ	ヘ	ホ	하	히	후	헤	호	하	히	후	헤	호
マ	ミ	ム	メ	モ	마	미	무	메	모	마	미	무	메	모
ヤ	イ	ユ	エ	ヨ	야	이	유	에	요	야	이	유	에	요
ラ	リ	ル	レ	ロ	라	리	루	레	로	라	리	루	레	로
ワ (牛)	ウ (エ)			ヲ	와 (이)	우 (에)			오	와 (이)	우 (에)			오
ン										ㄴ				
ガ	ギ	グ	ゲ	ゴ	가	기	구	게	고	가	기	구	게	고
ザ	ジ	ズ	ゼ	ゾ	자	지	즈	제	조	자	지	즈	제	조
ダ	ヂ	ヅ	デ	ド	다	지	즈	테	도	다	지	즈	테	도
バ	ビ	ブ	ベ	ボ	바	비	부	베	보	바	비	부	베	보
パ	ピ	プ	ペ	ポ	파	피	푸	페	포	파	피	푸	페	포
キャ	キュ	キョ			가		규		교	카		큐		쿄
ギャ	ギュ	ギョ			가		규		교	가		큐		교
シャ	シュ	ショ			샤		슈		쇼	샤		슈		쇼
ジャ	ジュ	ジョ			자		주		조	자		주		조
チャ	チュ	チョ			차		추		초	차		추		초
ヒャ	ヒュ	ヒョ			햐		휴		효	햐		휴		효
ビャ	ビュ	ビョ			바		뷰		보	바		뷰		보

ピャ	ピュ	ピョ	파	퓨	표	파	퓨	표
ミャ	ミュ	ミョ	마	뮤	묘	마	뮤	묘
リャ	リュ	リョ	라	류	료	라	류	료

표 5

중국어의 주음 부호(注音符號)와 한글 대조표

성 모(聲母)					운 모(韻母)									
음분류	주음부호	한어병음자모	웨이식마자	한글	음분류	주음부호	한어병음자모	웨이식마자	한글	음분류	주음부호	한어병음자모	웨이식마자	한글
중순성(單唇聲)	ㄅ	b	p	ㅂ	단	ㄚ	a	a	아	절	ㄧㄠ	yan (ian)	yen (ien)	옌
	ㄆ	p	p'	ㅍ		ㄛ	o	o	오		ㄩㄣ	yin (in)	yin (in)	인
	ㄇ	m	m	ㅁ		ㄜ	e	ê	어		ㄩㄤ	yang (iang)	yang (iang)	양
	ㄈ	f	f	ㅍ		ㄝ	ê	e	에		ㄩㄥ	ying (ing)	ying (ing)	잉
*순치성	ㄊ	d	t	ㄷ	운(單韻)	ㄧ	yī (i)	i	이	합	ㄨㄚ	wa (ua)	wa (ua)	와
	ㄊ	t	t'	ㅌ		ㄨ	wu(u)	wu(u)	우		ㄨㄛ	wo (uo)	wo (uo)	위
	ㄋ	n	n	ㄴ		ㄩ	yu(u)	yü(ü)	위		ㄨㄞ	wai (uai)	wai (uai)	와이
설첨성(舌尖聲)	ㄌ	l	l	ㄴ		ㄞ	ai	ai	아이	운구류(合口類)	ㄨㄟ	wei (ui)	wei (uei, ui)	웨이(우이)
심근성(舌根聲)	ㄍ	g	k	ㄱ	부운(複韻)	ㄟ	ei	ei	에이		ㄨㄢ	wan (uan)	wan (uan)	완
	ㄎ	k	k'	ㅋ		ㄠ	ao	ao	아오		ㄨㄣ	wen (un)	wên (un)	원(운)
	ㄏ	h	h	ㅎ		ㄡ	ou	ou	어우		ㄨㄤ	wang (uang)	wang (uang)	왕
심면성(舌面聲)	ㄐ	j	ch	ㅈ	부성운(附聲韻)	ㄢ	an	an	안	합구류(撮口類)	ㄨㄥ	weng (ong)	wêng (ung)	웁(웅)
	ㄑ	q	ch'	ㅊ		ㄣ	en	ên	엔		ㄨㄞ	yue (ue)	yüeh (üeh)	웨
	ㄒ	x	hs	ㅅ		ㄤ	ang	ang	앙		ㄨㄢ	yuan (uan)	yüan (üan)	위안
교설첨성(輕舌尖聲)	ㄷ	zh (zhi)	ch (chih)	ㅈ		ㄥ	eng	êng	엥		ㄩㄢ	yun (un)	yün (ün)	원
	ㄷ	ch (chi)	ch' (ch'ih)	ㅈ	*권설운	ㄹ	er(r)	êrh	얼	합구류(撮口類)	ㄩㄤ	yong (iong)	yung (iung)	용
	ㄷ	sh (shi)	sh (shih)	ㅅ		ㄚ	ya(ia)	ya(ia)	야					
심치성(舌齒聲)	ㄷ	r (ri)	j (jih)	ㄴ		ㄛ	yo	yo	요					
	ㄷ	z (zi)	ts (tzu)	ㅈ	제치류(齊齒類)	ㄜ	ye(ie)	yeh (ieh)	예					
	ㄷ	c (ci)	ts' (tzu')	ㅈ		ㄝ	yai	yai	야이					
	ㄷ	s (si)	s (ssu)	ㅅ		ㄠ	yao (iao)	yao (iao)	야오					
						ㄡ	you (ou, iu)	yu(iu)	유					

[]는 단독 발음될 경우의 표기임.

()는 자음이 선행할 경우의 표기임

* 순치성(齊齒聲), 권설운(捲舌韻)

제 3 장 표기 세칙

제 1 절 영어의 표기

표 1에 따라 적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적는다.

제 1 항 무성 파열음([p], [t], [k])

1)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보기] gap[ɡæp] 갭 cat[kæt] 캣

book [buk] 북

2) 짧은 모음과 유음·비음([l], [r], [m], [n])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보기] apt[æpt] 앵트 setback[setbæk] 셋백

act[ækt] 액트

3) 위 경우 이외의 어말과 자음 앞의 [p], [t], [k]는 ‘으’를 붙여 적는다.

[보기] stamp[stæmp] 스탬프 cape[keip] 케이프

nest[nest] 네스트 part[pa:t] 파트

desk[desk] 데스크 make[meik] 메이크

apple[æpl] 애플 mattress[mætris] 매트리스

chipmunk [tʃɪpmʌŋk] 치프멩크 sickness [sɪknɪs] 시크니스

제 2 항 유성 파열음([b], [d], [g])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는다.

[보기] bulb[bʌlb] **벌브** land[lænd] **랜드**

zigzag[ˈzɪgzæɡ] 지그재그 lobster[ˈlɒbstə] 로브스터

kidnap[kidnæp] 키드냅 signal[signəl] 시그널

제 3 항 마찰음([s], [z], [f], [v], [θ], [ð], [ʃ], [ʒ])

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s], [z], [f], [v], [θ], [ð]는 ‘으’를 붙여 적는다.

[보기] mask[ma:sk] 마스크 jazz[dʒæz] 재즈

graph[græf] 그래프

olive[ɒliv] 올리브

thrill[θril] 스릴

bathe[beɪð] 베이드

- 2) 어말의 [ʃ]는 ‘시’로 적고, 자음 앞의 [ʃ]는 ‘슈’로, 모음 앞의 [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새’, ‘셔’, ‘세’, ‘쇼’, ‘슈’, ‘시’로 적는다.

[보기] flash[flæʃ] 플래시

shrub[ʃrʌb] 슈러브

shark[ʃɑ:k] 샤크

shank[ʃæŋk] 샹크

fashion[fæʃən] 패션

sheriff[ʃerɪf] 셰리프

shopping[ʃɒpɪŋ] 쇼핑

shoe[fu:] 슈

shim[ʃɪm] 십

- 3) 어말 또는 자음 앞의 [ʒ]는 ‘지’로 적고, 모음 앞의 [ʒ]는 ‘즈’으로 적는다.

[보기] mirage[mɪrɑ:ʒ] 미라지

vision[vɪʒən] 비전

제 4 항 파찰음([ts], [dz], [tʃ], [dʒ])

- 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ts], [dz]는 ‘츠’, ‘즈’로 적고, [tʃ], [dʒ]는 ‘치’, ‘지’로 적는다.

[보기] Keats[ki:ts] 키츠

odds[ɒdz] 오즈

switch[swɪtʃ] 스위치

bridge[bɪdʒ] 브리지

Pittsburgh[pɪtsbɜ:g] 피츠버그

hitchhike[hɪtʃhaɪk] 히치하이크

- 2) 모음 앞의 [tʃ], [dʒ]는 ‘츠’, ‘즈’으로 적는다.

[보기] chart[tʃɑ:t] 차트

virgin[vɜ:dʒɪn] 버진

제 5 항 비음([m], [n], [ŋ])

- 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비음은 모두 받침으로 적는다.

[보기] steam[sti:m] 스팀

corn[kɔ:n] 콘

ring[rɪŋ] 링

lamp[læmp] 램프

hint[hɪnt] 힌트

ink[ɪŋk] 잉크

- 2) 모음과 모음 사이의 [ŋ]은 앞 음절의 받침 ‘ㅇ’으로 적는다.

[보기] hanging[hæŋɪŋ] 행잉

longing[lɒŋɪŋ] 롱잉

제 6 항 유음([j])

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j]은 받침으로 적는다.

[보기] hotel[houtel] 호텔 pulp[palp] 펄프

2) 어중의 [j]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m], [n]) 앞에 올 때에는 ‘리’로 적는다. 다만, 비음([m], [n]) 뒤의 [j]은 모음 앞에 오더라도 ‘리’로 적는다.

[보기] slide[slaid] 슬라이드 film[filɪm] 필름
 helm[helm] 헬름 swoln[swoulɪn] 스월른
 Hamlet[hæmlit] 햄릿 Henley[henli] 헨리

제 7 항 장모음

장모음의 장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보기] team[ti:m] 팀 route[ru:t] 루트

제 8 항 중모음([ai], [au], [ei], [oi], [ou], [auə])

중모음은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되, [ou]는 ‘오’로, [auə]는 ‘아워’로 적는다.

[보기] time[taim] 타임 house[haus] 하우스
 skate[skeit] 스케이트 oil[oil] 오일
 boat[bout] 보트 tower[tauə] 타워

제 9 항 반모음([w], [j])

1) [w]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wə], [wɔ], [wou]는 ‘워’, [wa]는 ‘와’, [wæ]는 ‘웨’, [we]는 ‘웨이’, [wi]는 ‘위’, [wu]는 ‘우’로 적는다.

[보기] word[wə:d] 워드 want[wɒnt] 원트
 woe[wou] 워 wander[wandə] 완더
 wag[wæg] 왜그 west[west] 웨스트
 witch[witʃ] 위치 wool[wul] 울

2) 자음 뒤에 [w]가 올 때에는 두 음절로 갈라 적되, [gw], [hw], [kw]는 한 음절로 붙여 적는다.

[보기] swing[swɪŋ] 스윙 twist[twɪst] 트위스트
 penguin[peŋɡwɪn] 펭귄 whistle[hwɪsl] 휘슬
 quarter[kwɔ:tə] 쿼터

3) 반모음 [j]는 뒤따르는 모음과 합쳐 ‘야’, ‘애’,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다만, [d], [l], [n] 다음에 [jə]가 올 때에는 각각 ‘디어’, ‘리어’, ‘니어’로 적는다.

[보기] yard[ja:d] 야드 yank[jæŋk] 앵크
 yearn[jæ:n] 연 yellow[jelou] 옐로
 yawn[jɔ:n] 온 you[ju:] 유
 year[jiə] 이어 Indian[indjən] 인디언
 battalion[bətæljən] 버텔리언 union[ju:njən] 유니언

제10항 복합어

1) 따로 설 수 있는 말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

[보기] cuplike[kʌplaɪk] 컵라이크
 bookend[bukend] 북엔드
 headlight[hedlaɪt] 헤드라이트
 touchwood[tʌtʃwud] 터치우드
 sit-in[sɪtɪn] 시트인
 bookmaker[bukmeɪkə] 북메이커
 flashgun[flæʃɡʌn] 플래시건
 topknot[tɒpnot] 톱낫

2) 원어에서 띄어 쓴 말은 띄어 쓴대로 한글 표기를 하되 붙여 쓸 수도 있다.

[보기] Los Alamos[lɒs æləməʊs] 로스 앨러모스/로스앨러모스
 top class[tɒpkləs] 톱 클래스/톱클래스

제 2 절 독일어의 표기

표 1 을 따르고 제 1 절(영어의 표기 세칙)을 준용한다. 다만, 독일어의 독특한 것은 그 특징을 살려서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제 1 항 [r]

1) 자음 앞의 [r]는 ‘으’를 붙여 적는다.

[보기] Hormon[hɔrmo:n] 호르몬 Hermes[hɛrmɛs] 헤르메스

2) 어말의 [r]와 ‘-er[ər]’는 ‘어’로 적는다.

[보기] Herr[hɛr] 헤어 Razur[razu:r] 라주어

Tür[ty:r] 튀어 Ohr[o:r] 오어

Vater[fa:tər] 파터 Schiller[ʃilər] 실러

3) 복합어 및 파생어의 선행 요소가 [r]로 끝나는 경우는 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기] verarbeiten[fɛrarbaitən] 페어아르바이텐

zerknirschen[tserknirʃən] 체어크니르셴

Fürsorge[fy:rzorgə] 뤼어조르게

Vorbild[fo:rbilt] 포어빌트

außerhalb[ausərhalb] 아우서할프

Urkunde[u:rkundə] 우어쿤데

Vaterland[fa:tərlant] 파터란트

제 2 항 어말의 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기] Rostock[rɔstɔk] 로스토크 Stadt[ʃtat] 슈타트

제 3 항 철자 ‘berg’, ‘burg’는 ‘베르크’, ‘부르크’로 통일해서 적는다.

[보기] Heidelberg[haidəlbɛrk, -bɛrç] 하이델베르크

Hamburg[hamburk, -burç] 함부르크

제 4 항 [ʃ]

1)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는 ‘슈’로 적는다.

[보기] Mensch[mɛnf] 멘슈 Mischling[miʃliŋ] 미슐링

2) [y], [ø] 앞에서는 ‘스’로 적는다.

[보기] Schüler[ʃy:lər] 쉴러 schön[ʃø:n] 쉐

3) 그 밖의 모음 앞에서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쇼, 슈’ 등으로 적는다.

[보기] Schatz[ʃats] 샤흐 schon[ʃo:n] 쉰
Schule[ʃu:lə] 쉐레 Schelle[ʃelə] 쉐레

제 5 항 [ɔy]로 발음되는 äü, eu 는 ‘오이’로 적는다.

[보기] läuten[lɔytən] 로이텐 Fräulein[frɔylain] 프로일라인
Europa[ɔyro:pa] 오이로파 Freundin[frɔyndin] 프로인딘

제 3 절 프랑스 어의 표기

표 1 에 따르면 제 1 절(영어의 표기 세칙)을 준용한다. 다만, 프랑스 어의 독특한 것은 그 특징을 살려서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제 1 항 파열음([p], [t], [k], [b], [d], [g])

1) 어말에서는 ‘으’를 붙여서 적는다.

[보기] soupe[sup] 수프 tête[tet] 테트
avec[avɛk] 아베크 baobab[baɔbab] 바오바브
ronde[rɔ:d] 롱드 bague[bag] 바그

2) 구강 모음과 무성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 파열음(‘구강 모음+무성 파열음+무성 파열음 또는 무성 마찰음’의 경우)은 받침으로 적는다.

[보기] septembre[sɛptɑ:br] 셉탕브르 apte[apt] 아파트
octobre[ɔktɔbr] 옥토브르 action[aksjɔ] 액시옹

제 2 항 마찰음([ʃ], [ʒ])

1) 어말과 자음 앞의 [ʃ], [ʒ]는 ‘슈’, ‘주’로 적는다.

[보기] manche[mɑ:ʃ] 망슈 piège[pjɛ:ʒ] 피에주
acheter[afte] 아슈테 dégeler[deʒle] 데즐레

2) [ʃ]가 [a], [w] 앞에 올 때에는 뒤따르는 모음과 합쳐 ‘슈’로 적는다.

[보기] chemise[ʃəmi:z] 슈미즈 chevalier[ʃəvalje] 슈발리에

choix[ʃwa] 슈아

chouette[ʃwet] 슈에트

3) [ʃ]가 [y], [œ], [ø] 및 [j], [ɥ] 앞에 올 때에는 ‘스’로 적는다.

[보기] chute[ʃyt] 쉬트

chuchoter[ʃyʃɔtɛ] 쉬쇼테

pêcheur[pɛʃœ:r] 페쉬르

shunt[ʃœ:t] 쉥트

fâcheux[faʃø] 파쇠

chien[ʃjɛ̃] 시앵

chuintier[ʃɥɛ̃tɛ] 쉬앵테

제 3 항 비자음([ɲ])

1) 어말과 자음 앞의 [ɲ]는 ‘뉴’로 적는다.

[보기] campagne[kɑ̃paɲ] 캥파뉴

dignement[diɲmɑ̃] 디뉴망

2) [ɲ]가 ‘아, 에, 오, 우’ 앞에 올 때에는 뒤따르는 모음과 합쳐 각각 ‘냐, 베, 뇨, 뉴’로 적는다.

[보기] saignant[sɛɲɑ̃] 세냐

peigner[peɲɛ] 페벼

agneau[aɲo] 아뇨

mignon[miɲɔ̃] 미뇽

3) [ɲ]가 [ə], [w] 앞에 올 때에는 뒤따르는 소리와 합쳐 ‘뉴’로 적는다.

[보기] lorgnement[lɔɲmɑ̃] 로르뉴망

baignoire[bɛɲwa:r] 베뉴아르

4) 그 밖의 [ɲ]는 ‘ㄴ’으로 적는다.

[보기] magnifique[maɲifik] 마니피크

guignier[giɲje] 기니에

gagneur[gaɲœ:r] 가너르

montagneux[mɔ̃taɲø] 몽타너

peignures[peɲy:r] 페뉴르

제 4 항 반모음[j]

1) 어말에 올 때에는 ‘유’로 적는다.

[보기] Marseille[marsɛj] 마르세유

taille[ta:j] 타유

2) 모음 사이의 [j]는 뒤따르는 모음과 합쳐 ‘예, 앵, 야, 양, 요, 용, 유, 이’ 등으로 적는다. 다만, 뒷 모음이 [ø], [œ]일 때에는 ‘이’로 적는다.

[보기] payer[peje] 페예

billet[bije] 비예

moyen[mwajɛ̃] 무아앵

pleiade[plejad] 플레야드

ayant[ɛjã] 에양

noyau[nwajo] 누아요

crayon[krɛjɔ̃] 크레옹

voyou[vwaju] 부아유

cueillir[kœji:r] 쿼이르

aïeul[ajœl] 아이윌

aïeux[ajø] 아이외

3) 그 밖의 [j]는 ‘이’로 적는다.

[보기] hier[jɛ:r] 이에르

Montesquieu[mōtɛskjø] 몽테스키외

champion[ʃãpjɔ̃] 샹피옹

diable[dja:bl] 디아블

제 5 항 반모음[w]

[w]는 ‘우’로 적는다.

[보기] alouette[alwet] 알루에트

douane[dwan] 두안

quoi[kwa] 쿠아

toi[twa] 투아

제 4 절 에스파냐어의 표기

표 2에 따라 적되,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살려서 적는다.

제 1 항 gu, qu

gu, qu는 i, e 앞에서는 각각 ‘ㄱ, ㅋ’으로 적고, o 앞에서는 ‘구, 쿠’로 적는다. 다만 a 앞에서는 그 a와 합쳐 ‘과, 콰’로 적는다.

[보기] guerra 게라

queso 케소

Guipuzcoa 기푸스코아

quisquilla 키스키야

antiguo 안티구오

Quorem 쿠오렘

Nicaragua 니카라과

Quarai 콰라이

제 2 항 같은 자음이 겹치는 경우에는 겹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적는다.

다만, -cc-는 ‘ㄱㅅ’으로 적는다.

[보기] carrera 카레라

carreterra 카레테라

accion 악시온

제 3 항 c, g

c와 g 다음에 모음 e와 i가 올 때에는 c는 ‘ㅅ’으로, g는 ‘ㅎ’으로 적고, 그 외는 ‘ㅋ’과 ‘ㄱ’으로 적는다.

[보기] Cecilia 세실리아	cifra 시프라
georgico 헤오르히코	giganta 히간타
coquito 코키토	gato 가토

제 4 항 x

x 가 모음 앞에 오되, 어두일 때에는 ‘x’으로 적고, 어중일 때에는 ‘ㄱs’으로 적는다.

[보기] xilofono 실로포노	laxante 락산테
---------------------------	-------------

제 5 항 l

어말 또는 자음 앞의 l 은 받침 ‘ㄹ’로 적고, 어중의 l 이 모음 앞에 올 때에는 ‘ㄹㄹ’로 적는다.

[보기] ocal 오칼	colcren 콜크렌
blandon 블란돈	Cecilia 세실리아

제 6 항 nc, ng

c 와 g 앞에 오는 n 은 받침 ‘ㅇ’으로 적는다.

[보기] blanco 블랑코	yungla 융글라
------------------------	------------

제 5 절 이탈리아어의 표기

표 3에 따르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살려서 적는다.

제 1 항 gl

i 앞에서는 ‘ㄹㄹ’로 적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글ㄹ’로 적는다.

[보기] paglia 팔리아	egli 엘리
gloria 글로리아	glossa 글로사

제 2 항 gn

뒤따르는 모음과 합쳐 ‘냐’, ‘네’, ‘뇨’, ‘뉴’, ‘니’로 적는다.

[보기] montagna 몬타냐	gneiss 네이스
gnocco 뇨코	gnu 뉴
ogni 오니	

제 3 항 sc

sce 는 ‘세’로, sci 는 ‘시’로 적고, 그 밖의 경우에는 ‘스ㄱ’으로 적는다.

[보기] crescendo 크레센도	scivolo 시볼로
Tosca 토스카	scudo 스쿠도

제 4 항 같은 자음이 겹쳤을 때에는 겹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적는다. 다만, -mm-, -nn-의 경우는 ‘ㄹㄹ’, ‘ㄴㄴ’으로 적는다.

[보기] Puccini 푸치니	buffa 부파
allegretto 알레그레토	carro 카로
rosso 로소	mezzo 메초
gomma 과마	bisnonno 비스논노

제 5 항 c, g

1) c 와 g 는 e, i 앞에서 각각 ‘츠’, ‘즈’으로 적는다.

[보기] cenere 체네레	genere 제네레
cima 치마	gita 지타

2) c 와 g 다음에 ia, io, iu 가 올 때에는 각각 ‘차, 초, 추’, ‘자, 조, 주’로 적는다.

[보기] caccia 카차	micio 미초
ciuffo 추포	giardino 자르디노
giorno 조르노	giubba 주바

제 6 항 qu

qu 는 뒤따르는 모음과 합쳐 ‘콰, 퀘, 퀴’ 등으로 적는다. 다만, ‘오’ 앞에서는 ‘쿠’로 적는다.

[보기] soquadro 소콰드로	quello 켈로
quieto 퀴에토	quota 쿠오타

제 7 항 l, ll

어말 또는 자음 앞의 l, ll 은 받침으로 적고, 어중의 l, ll 이 모음 앞에 올 때에는 ‘ㄹㄹ’로 적는다.

[보기] sol 솔	polca 폴카
-------------------	----------

Carlo 카를로

quello 켈로

제 6 절 일본어의 표기

표 4 에 따르고,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적는다.

제 1 항 축음(促音)[ッ]는 ‘스’으로 통일해서 적는다.

[보기] サッポロ 삿포로 トットリ 뚝토리 ヌッカイチ 옷카이치

제 2 항 장모음

장모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보기] キュウシュウ(九州) 규슈 ニイガタ(新潟) 니가타

トウキョウ(東京) 도쿄 オオサカ(大阪) 오사카

제 7 절 중국어의 표기

표 5 에 따르고,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적는다.

제 1 항 성조는 구별하여 적지 아니한다.

제 2 항 ‘스, ㄷ, ㄷ’으로 표기되는 자음(ㄴ, ㄷ, ㄷ, ㄷ, ㄷ, ㄷ) 뒤의
‘ㄱ, ㅋ, ㆁ, ㆁ’ 음은 ‘ㄱ, ㅋ, ㆁ, ㆁ’로 적는다.

[보기] 니|ㄱ 자→자 니|ㄱ 제→제

제 4 장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제 1 절 표기 원칙

제 1 항 외국의 인명, 지명의 표기는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항 제 3 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언어권의 인명, 지명은 원지음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기] Ankara 앙카라 Gandhi 간디

제 3 항 원지음이 아닌 제 3 국의 발음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관용을 따른다.

[보기] Hague 헤이그

Caesar 시저

제 4 항 고유 명사의 번역명이 통용되는 경우 관용을 따른다.

[보기] Pacific Ocean 태평양

Black Sea 흑해

제 2 절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

제 1 항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 2 항 중국의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 3 항 일본의 인명과 지명은 과거와 현대의 구분 없이 일본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 4 항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한다.

[보기] 東京 도쿄, 동경

京都 교토, 경도

上海 상하이, 상해

臺灣 타이완, 대만

黃河 황허, 황하

제 3 절 바다, 섬, 강, 산 등의 표기 세칙

제 1 항 ‘해’, ‘섬’, ‘강’, ‘산’ 등이 외래어에 붙을 때에는 띄어 쓰고 우리 말에 붙을 때에는 붙여 쓴다.

[보기] 카리브 해, 북해, 발리 섬, 목요섬

제 2 항 바다는 ‘해(海)’로 통일한다.

[보기] 홍해, 발트 해, 아라비아 해

제 3 항 우리 나라를 제외하고 섬은 모두 ‘섬’으로 통일한다.

[보기] 타이완 섬, 코르시카 섬 (우리 나라 : 제주도, 울릉도)

제 4 항 한자 사용 지역(일본, 중국)의 지명이 하나의 한자로 되어 있을

경우, ‘강’, ‘산’, ‘호’, ‘섬’ 등은 겹쳐 적는다.

〔보기〕	온타케 산(御岳)	주장 강(珠江)
	도시마 섬(列島)	하야카와 강(早川)
	위산 산(玉山)	

제 5 항 지명이 산맥, 산, 강 등의 뜻이 들어 있는 것은 ‘산맥’, ‘산’, ‘강’ 등을 겹쳐 적는다.

〔보기〕	Rio Grande 리오그란데 강	Monte Rosa 몬테로사 산
	Mont Blanc 몽블랑 산	Sierra Madre 시에라마드레 산맥

Ⅳ. 외래어 표기법 해설

제 1 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 1 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외래어는 외국에서 빌어다가 국어의 일부로 쓰는 말이다. ‘담배’는 본래 ‘tobacco’에서 온 말인데, ‘연초’란 말로 번역하여 쓰기도 했지만 ‘담배’로 통용된다. 이러한 말을 외래어라고 한다.

외래어는 ‘담배’, ‘납포’ 등과 같이 이제는 그 어원을 잊었을 정도로 아주 국어의 한 부분이 된 것도 있지만, ‘아나운서’, ‘넥타이’ 등과 같이 그것이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라는 의식이 남아 있는 것도 있고, ‘바캉스’, ‘트러블’ 등과 같이 아직 자리를 굳히지 못한 것도 있으나, 이들이 국어의 문맥 속에서 국어식으로 받아들여지며 때로는 그 본래의 뜻이 변해가면서 국어의 일부로 쓰이는 점은 같다.

이러한 외래어를 표기하기 위해 국어의 현용 24 자모 외에 특별한 글자나 기호를 만들어서까지 그 원음을 충실하게 표기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새로운 기호의 제정은 그것을 별도로 익혀야 하는 무리한 부담을 주는 것이 되며, 그러한 표기가 잘 지켜지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외래어의 표기는 일부 전문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

며 그들이 쉽게 보고 익혀서 쓸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 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외래어의 1 음운은 1기호로 적어야 기억과 표기가 용이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만, 외국어의 1 음운이 그 음성 환경에 따라서 국어의 여러 소리에 대응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1 음운 1기호의 원칙이 무리이며, 이러한 때에 한해서 간혹 두 기호로 표기할 필요가 있을 때를 예상하여 ‘원칙적으로’라는 단서를 붙였다.

제 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이 조항은 외래어라고 할지라도 국어의 발음 규칙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국어에서는, 예컨대 ‘읽’이 단독으로는 발음 규칙에 의해 [입]으로 발음되지만, ‘읽이’ [이피], ‘읽으로’ [이프로] 등과 같은 형태 음소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위의 일곱 글자 이외의 것도 받침으로 쓰이나, 외래어는 그러한 형태 음소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book’은 ‘불’으로도 표기할 수 있지만 ‘불이’ [부키], ‘불을’ [부클]이라 하지 않고 ‘북이’ [부기], ‘북을’ [부클]이라 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불’으로 표기할 필요가 없다. 외래어는 그대로 발음 규칙에 따라 표기하는 것이 옳다.

다만 국어의 ‘ㅅ’ 받침은 단독으로는 ‘ㄷ’으로 발음되지만 모음 앞에서 ‘ㅅ’으로 발음되는 변동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외래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racket’은 [라켄]으로 발음되지만, ‘라켓이’ [라케시], ‘라켓을’ [라케슬]로 변동하는 점이 국어와 같다. 그러므로 ‘ㅅ’에 한하여 발음 규칙에도 불구하고 ‘ㄷ’이 아닌 ‘ㅅ’을 받침으로 쓰게 한 것이다.

제 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항은 유성·무성의 대립이 있는 파열음을 한글로 표기할 때 유성 파열음은 평음(ㅂ, ㄷ, ㄱ)으로, 무성 파열음은 격음(ㅃ, ㄸ, ㄲ)으로 적기로 한 것이다. 국어의 파열음에는 유성·무성의 대립이 없으므로 외래

어의 무성음을 평음으로 적을 수도 있으나, 그러면 유성음을 표기할 방법이 없다. 유성 파열음을 가장 가깝게 표기할 수 있는 것은 평음이다. 따라서 무성 파열음은 격음이나 된소리로 표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어에 따라서, 같은 무성 파열음이 국어의 격음에 가까운 경우도 있고 된소리에 가까운 것도 있다. 영어의 무성 파열음은 된소리보다 격음에 가깝고, 프랑스어나 일본어의 무성 파열음은 격음보다 된소리에 가깝다. 이렇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무성 파열음은 격음 한 가지로만 표기하기로 한 것이다. 그 까닭은 같은 무성 파열음을 언어에 따라 어떤 때는 격음으로 어떤 때는 된소리로 적는다면 규정이 대단히 번거로와질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한 언어의 발음을 다른 언어의 표기 체계에 따라 적을 때, 정확한 발음 전사는 어차피 불가능한 것으로, 비슷하게밖에 전사되지 않는다. 프랑스어 또는 일본어의 무성 파열음이 국어의 된소리에 가깝게 들린다고는 해도 아주 똑같은 것은 아니며, 격음에 가깝게 들리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규정의 생명인 간결성과 체계성을 살려서 어느 한 가지로 통일하여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국어에서는 된소리가 격음에 비해서 그 기능 부담량이 훨씬 적다. 사전을 펼쳐 보면 된소리로 된 어휘가 얼마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외래어에 된소리 표기를 허용하면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빠, 뽀, 뽀, 껌, 껌’ 등과 같은 음절들을 써야 하게 되며 인쇄 작업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격음의 경우에도 이렇게 국어에서 쓰지 않는 음절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사실이나 된소리까지 씌으로써 그러한 불합리와 부담을 가중시킬 필요가 없다.

이 규정은 중국어 표기에도 적용된다. 중국어의 무기음이 우리의 된소리에 가깝게 들리기는 하지만, 무기 유기의 대립을 국어의 평음과 격음으로 적는 것이 된소리와 격음으로 적는 것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것이다.

제 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외래어는 그 차용 경로가 다양하다. 문자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귀로 들어서 차용되는 것도 있으며, 원어에서 직접 들어오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제삼국을 통해서 간접 차용되는 것도 있다. 또 오래 전부터 쓰여 온 것도 있고 최근에 들어온 것도 있다. ‘카메라’, ‘모델’ 같은 것은 철자를 로마자 읽기 식으로 차용한 것이며, ‘펍’ 같은 것은 귀로 들어서 들어온 것이다.

‘pimp’를 로마자 읽기 식으로 하면 ‘핍프’가 되었을 것인데, 영어의 짧은 [i]는 우리에게 [네]에 가깝게 들리기 때문에 ‘팸프’가 되었다. ‘fan’을 ‘후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일본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이며, ‘담배’, ‘납포’ 같은 것은 연대가 하도 오래 되어서 일반 대중은 이들이 외래어라는 의식이 없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들어온 외래어는 어떤 특정한 원칙만으로는 그 표기의 일관성을 기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b, d, g]가 ‘ㅂ, ㄷ, ㄱ’으로 발음되고 있으나 같은 [b, d, g]가 어느 경우에는 ‘ㅃ, ㄸ, ㄲ’으로 발음되고 있다. 또 같은 말이 두 가지로 발음되고 뜻도 달리 쓰이는 것이 있다. ‘cut’은 ‘컷’이라고도 하고 ‘커트’라고도 하는데, 인쇄의 도판일 때에는 ‘컷’이라고 하고, 정구나 탁구공을 깎아서 치는 것을 ‘커트’라고 한다.

이러한 외래어 중 이미 오랫동안 쓰여져 아주 굳어진 관용어는 그 관용을 인정하여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관용대로 적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그 관용의 한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표준어를 사정하듯 하나 하나 사정해서 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 작업은 별도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게 사정된 관용 외래어는 장차 용례집을 편찬하여 일반이 참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따라서 이 표기법은 관용어라고 할 만큼 자리를 굳히지 못한 외래어나 앞으로 새로 들어올 말들을 체계적으로 통일성 있게 표기하는 데 지침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의 보기에는 아직 외래어로 볼 수 없는 외국어의 예도 필요에 따라 제시하였다.

제2장 표기 일람표

일반적으로 외래어는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에 따라 표기하도록

하되, 중국어와 같이 국제 음성 기호를 쓰지 않거나 에스파냐 어, 이탈리아 어, 일본어와 같이 철자가 곧 음성 기호의 역할을 하는 언어는 별도의 한글 대조표를 만들어서 그에 따라 표기하도록 하였다.

국어와 직접 접촉이 없는 언어로서 제삼국을 통해 차용되는 외래어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원음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제삼국에서 변형된 발음을 그대로 표기해야 할 때가 있을 것이므로 모든 언어는 국제 음성 기호의 한글 대조표에 의해서 표기한다는 원칙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국제 음성 기호의 배열은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서, 자음은 파열음, 마찰음, 비음, 유음, 후두음의 순서로, 그리고 이들은 다시 음성 기관의 바깥쪽에서 발음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안쪽에서 나는 소리의 순서로 배열하였다. 모음은 모음 사각도의 왼쪽 상부로부터 한 바퀴 돌아서 오른쪽 상부에 이르는 순서로 배열하되 같은 자리에서 나는 평순 모음을 먼저 들고 원순 모음을 다음에 들었다. 자음은 다시 그것이 나타나는 자리, 곧 모음 앞, 자음 앞 또는 어말 등의 위치에 따라 달리 표기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일본어 ‘가나’의 ‘カ’행과 ‘タ’행은 어중과 어말에서 된소리로 표기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성 파열음 표기는 격음 한 가지로 통일하여 적기로 한 원칙을 따랐다.

앞으로 외래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외국어의 한글 대조표가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장 표 기 세 칙

외래어의 한글 표기 지침은 일단 제 2 장의 표기 일람표로 정리가 되었다. 따라서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에 따라 한글 표기가 가능한 언어는 각 개별 언어에 따른 별도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불필요하다. 그러나 한 기호를 그것이 나타나는 위치(모음 앞, 자음 앞, 어말)에 따라 달리 표기하도록 한 것은 그 예시가 필요하며, 언어에 따라 아주 무시하기 어

려운 개별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 표기법의 범위 안에서 이러한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세부 규정을 두었다.

본 장에서는 제 1절 영어의 표기 세칙을 비교적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제 음성 기호에 의해 표기되는 다른 언어를 영어의 표기 세칙에서 규정된 내용을 준용하게 함으로써 규정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제 1절 영어의 표기

영어의 표기는 미국 영어에서 차용된 외래어는 미국식 발음을, 영국 영어에서 차용된 것은 영국식 발음을 제 2장 표 1의 대조표와 본 영어 표기의 규정에 따라 표기한다.

제 1항의 1)과 2)는 무성 파열음 [p, t, k]가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에 올 경우와 짧은 모음과 유음·비음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올 경우의 규정이다. 즉 둘 다 짧은 모음 다음의 [p, t, k]의 표기에 관한 것이므로 한 조항으로 묶을 수도 있으나 그러면 조항이 대단히 길고 복잡해지므로 편의상 두 조항으로 나누어 규정한 것이다.

제 3항 3)은 [ʒ]는 ‘지’로 적는다고 하면 대단히 간단해진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vision[vizən]’은 ‘비전’이 되어야 하는데 국어에서는 ‘저’가 ‘지’로 발음된다. ‘저’뿐만 아니라 ‘자, 조, 주, 차, 처, 초, 추’가 ‘자, 조, 주, 차, 처, 초, 추’로 발음된다. ‘즈, 츠’이 이미 구개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 조’ 등의 표기는 무의미하다. 국어의 맞춤법에서 ‘가저’, ‘다쳐’ 같은 표기가 있지만 그것은 이들이 각각 ‘가지어’, ‘다치어’의 준말이라는 문법적 사실을 보이기 위한 표기에 불과하다. 제 4항의 1) 2)도 이와 같은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제 7항에서는 장모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어에도 ‘밤[栗]: 밤[夜]’, ‘눈[眼]: 눈[雪]’과 같이 장음 유무에 따라 의미 분화가 이루어지는 예가 허다하며, 장음으로 발음하지 않으면 뜻이 통하지 않는 많은 한자어가 있는데 이를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래어의

장음을 표기하자면 장음 부호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국어의 현용 24 자모 이외의 글자나 부호를 만들어 쓰지 않는다는 제 1 장 제 1 항의 정신에 어긋난다. 물론 새로운 부호를 쓰지 않고 같은 모음을 겹쳐 적음으로써 장음 표기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별도의 음절을 이루는 것이므로 장음표기로 적당하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국어에서는 장음이 첫째 음절에서만 발음되는 경향이 있어서 둘째 음절 이하의 장음 표기는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장음 표기 규칙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이런 까닭으로 장음 표기는 아예 하지 않기로 한 것이며, 이 규정은 모든 외래어에 적용된다.

제 8 항 및 제 9 항 1)에서 [ou], [wou]의 [u]를 따로 적지 않기로 한 것은 이때의 [u]가 일종의 과도음으로 장음 표시에 가까운 것이므로 역시 적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제 10 항은 독립하여 단독으로 쓰이는 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복합어의 표기에 관한 규정이다. 1)은 독립하여 쓰일 수 있는 말들이 모여서 하나의 복합어를 이루기는 했으나 이를 한 말로 보아 표기를 하면 이들이 각각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와 아주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마치 같은 말을 두 가지로 표기하는 듯한 인상을 주며 기억하기에도 불편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를 살려서 적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면 ‘book-maker[bukmeika]’는 ‘book’과 ‘maker’가 합해서 이루어진 말인데 이들이 단독으로 쓰일 때는 각각 ‘북’, ‘메이커’로 표기된다. 그런데 [bukmeika]는, 무성 파열음 [k]는 짧은 모음 뒤일지라도 비음 앞에서는 ‘으’를 붙여서 적기로 한 제 1 항 3)에 의하여 ‘부크메이커’가 된다. 즉 ‘북’이 ‘부크’로 나타나게 되어 표기에 변동이 생긴다. ‘북’이나 ‘메이커’가 모두 흔히 쓰이는 말일 때 이러한 표기의 변동은 부담을 느끼게 하고 따라서 그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이다. 단독으로 쓰일 수 없는 접사에 의한 파생어는 이 규정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2)는 원어에서 이미 띄어 쓰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단어가 모여서 된

것이 분명하게 인식되지만, 국어에 들어와서 마치 하나의 복합어처럼 인식되어 쓰이는 말들은 비록 원어에서는 띄어 쓰지만 붙여 적을 수도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때에도 원어에 충실하며 동시에 1)의 정신을 살려서 각각 단독으로 쓰일 때의 한글 표기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제 2절 독일어의 표기

영어의 경우와 같이 표 1(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제 1절(영어의 표기 세칙) 가운데 독일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조항들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면서 독일어 표기에 특별히 필요한 것들만을 제 2절의 표기 세칙으로 정하였다.

제 1항은 [r]의 표기에 관한 규정이다. 표 1에 따르면 자음 앞 및 어말에서의 [r]는 모두 ‘르’로 적게 되어 있는데, 독일어의 경우에는 이것을 둘로 나누어 규정했다. 자음 앞의 [r]는 표 1에 정해진 대로 ‘르’로 적는 반면, 어말의 [r]는 현실발음을 반영하여 ‘어’로 적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정이다.

사전에서 [r]로 표기하고 있는 발음 가운데에는 현실적으로 모음으로 발음되는 것들이 많다. 이 모음을 표시할 때 a를 거꾸로 한 음성 기호 [ɐ]를 쓰고 있는데, 이 [ɐ]는 ‘어’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실제의 표기에 있어서의 혼동을 염려하여 어말의 [r]와 그에 준하는 경우들만을 ‘어’로 적도록 제한하였다. 가령 Tür[ty:r]를 ‘튀어’로 적는 것은 어말의 경우이고, 복합어나 파생어의 선행요소가 [r]로 끝나는 경우 ‘어’로 적는 다음과 같은 표기들은 그에 준하는 경우들이다.

Vorbild[fo:rbɪlt] 포어빌트 Urkunde[u:rkundə] 우어쿤데

어말의 ‘-er[ər]’를 ‘에르’나 ‘에어’로 적지 않고 ‘어’로 적기로 한 것도 같은 정신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 2항은 어말의 파열음에 관한 규정이다. 영어의 경우에는 어말 파열음의 표기가 상당히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독일어에서는 어말에 유성 파열음이 오는 일이 없기 때문에 ‘으’가 붙은 ‘크, 트, 프’로 적도록

규정한 것이다.

제 3항은 두 가지 발음이 있는 ‘berg’, ‘burg’에 대한 발음 선택을 나타낸 조항이다. Heidelberg, Hamburg 를 각각 ‘하이델베르히’, ‘함부르히’라 하지 않고 ‘하이델베르크’, ‘함부르크’로 통일하여 적도록 한 것이다.

제 4항은 마찰음 [ʃ]에 관한 조항이다. 영어의 경우와 다른 점은 어말의 [ʃ]를 ‘슈’로 적도록 한 점이다.

또한 원순 전설 모음 [y], [ø] 앞의 [ʃ]는 [s]와 구별하여 적을 방도가 없기 때문에 ‘스’으로 적도록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제 3절 프랑스어의 표기

프랑스어도 독일어의 경우와 같이 표 1에 따르고 제 1절을 준용하면서 프랑스어 특유의 것들만을 세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 1항은 파열음에 관한 조항인데, 1)에서는 어말의 파열음은 모두 ‘으’를 붙여 적게 하고 있다. 독일어의 경우와 같은 규정이지만 프랑스어에는 유성음의 [b], [d], [g]가 어말에 올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2)는 무성 파열음 [p], [t], [k]를 받침 ‘ㅍ’, ‘ㅌ’, ‘ㄱ’으로 적어야 하는 경우를 밝히고 있다.

제 2항은 마찰음 [ʃ], [ʒ]에 관한 조항이다.

1)에서는 어말과 자음 앞의 [ʃ], [ʒ]를 ‘슈’, ‘주’로 적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독일어의 경우와 같고 영어와 다르게 규정된 조항이다.

2)는 프랑스어 특유의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ʃ]가 [ə], [w]에 연결될 때에는 그 모음 또는 반모음과 합쳐 ‘슈’로 적을 것을 규정하였다.

3)는 독일어의 경우에 유사한 것으로 원순 전설 모음 앞의 [ʃ]를 ‘스’으로 적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한가지 특이한 것은 반모음 [j], [ɥ]와의 결합에서 그 앞에 오는 [ʃ]도 [s]와 구별 없이 ‘스’으로 적게 한다는 점이다.

제 3항은 프랑스어 특유의 비자음 [ɲ]에 관한 조항인데, 앞의 항에서의 [ʃ], [ʒ]에 대한 처리 방법을 그대로 연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 4항과 제 5항은 각각 반모음 [j]와 반모음 [w]에 관한 조항들인데, 그 내용이 매우 특수하게 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반모음 [w]는 모두 ‘우’로 적기로 되어 있으니까, 특수하기는 해도 매우 간단한 규정으로 되어 있어 일단 이 원칙만 익히면 혼동의 염려가 없다.

그 반면에 반모음 [j]의 경우에는 ‘유’로 적을 경우, 다음에 오는 모음과 합쳐 ‘야, 요, 유’ 등으로 적을 경우가 있으며, 또 ‘이’로 적을 경우도 있는데 그 조건들이 간단하지 않다. 일단 어말에서는 ‘유’,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야, 요, 유’ 등, 그 밖의 경우에는 ‘이’라고 분류되지만, 둘째 경우에도 [j] 다음의 모음이 원순 전설 모음일 때에는 [j]를 ‘이’로 적는다고 단서가 붙어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제 4절 에스파냐어의 표기

표 1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표 2에 따라 적도록 되어 있다. 표 2는 에스파냐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이다. 이 대조표를 따르되, 그 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표기 세칙으로 담고 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에스파냐 본국의 발음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남미의 발음 습관은 여기서 도외시되었다는 점이다.

제 3항과 제 4항에서는 c, g 및 x가 각각 다음에 오는 모음의 차이 또는 그 위치의 차이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 제 2항은 겹친 자음은 간편을 위하여 하나의 자음으로 적는 원칙을 제시한 항목이다.

제 1항은 gu, qu가 모음 앞에 올 때의 적는 법을 알려 주는 조항이고, 제 6항은 n이 c나 g 앞에서 역행 동화에 의하여 [ŋ]으로 발음되는 것을 ‘ㅇ’으로 적어야 함을 말해 주고 있다.

제 5항은 1 소리를 국어가 받아들이는 때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특별히 지적할 것은 없다.

제 5 절 이탈리아어의 표기

에스파냐어의 경우와 같이 독자적인 자모 대조표(표 3)를 기준으로 한다.

제 1 항은 *gl*이 *i* 앞에서 ‘ㄱㄱ’로 발음됨을 주의시킨 조항이고, 제 2 항은 *gn*이 [ɲ]의 음가를 가진다는 것을 밝히는 조항이다.

제 3 항과 제 5 항은 *sc*와 *c, g*가 각각 다음에 오는 모음의 차이에 따라 발음이 달라짐을 지적한 항목이다.

제 4 항에서는 에스파냐어의 경우와 같이 표기의 간편화를 위하여 겹친 자음은 하나로 적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mm-*, *-nn-*에 대해서만은 ‘ㄱㄱ’, ‘ㄴㄴ’을 용인하는 것이 에스파냐어의 경우와는 다르다 할 수 있다.

제 6 항은 *qu*를 [kw-]로 적는 방법을 말한 것인데, *quo*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제 7 항은 1에 관한 일반 규정이다.

제 6 절 일본어의 표기

제 1 항에서 일본어의 축음[ツ]는 ‘ㅅ’으로 통일해서 적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순음 앞에서는 ‘ㅅ’, 설단음이나 구개음 앞에서는 ‘ㅅ’[ㄷ], 연구개음 앞에서는 ‘ㄱ’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나 음성학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규정이 되기가 쉽다. 국어의 ‘ㅅ’ 받침은 어차피 그 뒤에 따르는 자음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ㅅ, ㄷ, ㄱ으로 변동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굳이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

제 2 항에서는 장음을 따로 표기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 1 절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일본어에서 장음이 말의 의미를 분화시킬 수 있어 변별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장음을 살려서 표기한다면, 영어의 강세(stress), 중국어의 성조도 살려서 표기해야 한다. 그러자면 특별한 글자나 기호를 새로 만들어 쓰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은 제 1 장 제 1 항의 정신에 어긋난다.

제 7절 중국어의 표기

표 5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표 5는 주음 부호와 한글 대조표라 명명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어 병음 자모 및 웨이드식 로마자까지를 부기하여 실용에 편리하게 짜여 있다.

중국어의 표기에서는 일체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표만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제 1항은 성조의 차이를 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언어들에 대해서 장모음 표기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외래어 표기에 있어 일체의 운율적 특질의 표기를 배제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 2항은 국어의 발음에서 구별되지 않는 ‘자’와 ‘쟈’, ‘조’와 ‘쵸’ 등을 ‘자’, ‘조’ 등으로 통일하여 적음으로써 표기의 간편화를 기한 조항이다.

제 4 장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제 1절 표기 원칙

외국의 인명, 지명도 일반 외래어 표기 규정을 바탕으로 하여 적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들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표기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제 4 장의 목적이다.

제 1항에서는 외국의 인명, 지명도 외래어이기 때문에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의 여러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고 제 2 항에서는 본 외래어 표기법에 그 표기 기준이 밝혀져 있지 않은 언어권의 인명, 지명도 자기 그 언어 고유의 발음을 반영하여 적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다. 다만 그 원지음을 알기 어려울 때에는 매체 언어(예컨대 영어, 프랑스어 등)의 발음에 따라 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제 3항과 제 4항은 관용을 인정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 원지음을 따르는 것이 원칙

이지만 실제로는 제 3국의 발음으로 통용되고 있는 인명이나 지명은 그 관용을 인정한다는 것이 제 3항의 내용이고, 발음에 의한 수용이 아니고 번역에 의해서 수용되고 있는 것도 그 관용을 따른다는 것이 제 4항의 내용이다.

원지음에 따른다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 많은 언어에 고루 통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몇몇 언어권의 인명, 지명을 제외하고는 제 3국의 발음을 통하여 수용된다는 것이 현실임을 인정할 타당성 있는 처리이고, 또한 번역을 통한 차용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다.

제 2절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

여기서 동양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 일본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우리와 오랜 세월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다는 사실과 함께 한자 문화권의 나라들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이들 두 나라의 인명 지명의 표기에 대한 특별한 기준의 추가를 필요로 하게 한다.

중국이나 일본의 인명, 지명에 대해서는 우리의 한자음으로 읽는 것이 우리 나라의 오랜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 전통은 원지음을 존중한다는 지금의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태도와 상충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원지음의 도전을 받고 있다. 어떻게 하면 전통은 전통대로 살리고 현실은 현실대로 수용하면서 양자 간의 마찰을 극소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 2절의 여러 규정에 흐르는 기본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가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제 4항이다. 즉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하여 ‘東京’은 ‘도쿄’, ‘동경’으로, ‘臺灣’은 ‘타이완’, ‘대만’ 등으로 적도록 하였다. 같은 중국 지명이라고 하더라도 ‘哈爾濱’ 같은 것은 원지음대로 ‘하얼빈’이라 하고 ‘함피빈’이라 하지는 않으며, 일본 지명의 ‘鹿兒島’를 ‘가고시마’라고 하지 ‘녹아도’라고는 하지 않으나,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국 한자음으로 읽어온 전통을 살리고자 한 것이다.

1, 2 항은 중국에 관한 조항이고, 3 항은 일본에 관한 것인데, 일본의 인명과 지명은 과거와 현대의 구분 없이 원지음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과거와 현대를 구분하여 한국 한자음과 원지음이라는 다른 기준으로 적는 것이 균형을 잃은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 역시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인명, 지명은 고전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 융화되어 우리 한자음으로 읽는 전통이 서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그러한 인명, 지명이 있다 해도 그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에 비례할만한 규정을 들쳐지가 아닌 것이다. 일본의 인명, 지명으로서 꼭 우리 한자음으로만 표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제 1 장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용어로 특별히 사정하는 길이 남아 있다.

제 2 절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여 혼동을 피하게 한 점이다.

중국 인명에 대한 과거와 현대의 구분은 대체로 종래와 같이 신해혁명(辛亥革命)을 분기점으로 한다. 다만, 현대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한자음으로 읽는 관행이 있는 인명에 대하여는 ‘장 개석’(蔣介石), ‘모택동’(毛澤東)과 같은 표기를 관용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지명의 경우 ‘상해’(上海), ‘황하’(黃河)를 허용하는 정신과도 통한다.

제 3 절 바다, 섬, 강, 산 등의 표기 세칙

지명 표기에서 생기는 부수적인 문제들에 대한 세부적 규정들이 제시되어 있다.

제 1 항은 띄어쓰기에 관한 것으로 ‘해’, ‘섬’, ‘강’, ‘산’이 외래어에 붙을 때에는 띄어 쓰고 우리말에 붙을 때에는 붙여 쓴다고 하였는데, 이런 말들을 외래어에 붙여 썼을 때에 일어날 혼동을 염려해서 구별지은 것이다.

바다는 ‘해’(海)로 통일하면서(제 2 항), 섬은 ‘도’와 ‘섬’으로 구분 표기하는 것(제 3 항)은 자의적인 규정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굳

이 달리 고쳐야 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제 4항도 제 3항과 같이 1958 년부터 시행되어 온 표기법에 들어있던 것으로 굳이 그 이유를 찾는다면 한자를 기준으로 하나의 글자로 된 산이나 강 이름이 일반적이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제 5항은 관용에 관계된 항목이라 할 수 있다. 가령 Mont Blanc의 경우 Mont이 ‘산’이라는 뜻이지만, ‘몽블랑’ 전체를 고유 명사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므로, 거기에 다시 ‘산’을 붙여 ‘몽블랑 산’이라 하고 Rio Grande의 경우에도 Rio가 이미 ‘강’을 뜻하는 것이지만, ‘리오그란테’까지를 강이름으로 하고 거기에 다시 ‘강’자를 붙이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